예측하고 준비하는 종무행정시대 열렸다

■ 3·3대 집행부 '1대 총책' 평가와 과제

4개년 계획 통해 로드맵 제시
핵심 11 주요과제 25개 담겨
종단 과제 기시화되고 안정화
중앙은 정책… 교구 확대 '과제'

글 싣는 순서
① 승려복지
② **종무행정체계화**
③ 사설모셔시스템 개선
④ 불교관계 국가복도 및 정책개선
⑤ 승가교육 개선
⑥ 전통문화보존
⑦ 지배 나눔 설치
⑧ 사회적 참여 실천
⑨ 자성과 쇄신 결사
⑩ 한국불교 세계화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생긴 변화가운데 하나가 중앙종무기관의 달라진 종무행정이다. 주지연사교과제, 도지사분규 활용, 해외학술교류 신설, 사후 재심기준 유연성 적용 등 새로 도입된 제도 외에 종단의 행정 정치 체계화 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무원장 자승스님이 취임 직후 종단발전을 위한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종무원장이 취임 초 선언한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발표한 것은 사실 한대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전까지 지난 해도 1년 단위로 사업을 소개하거나 분야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업 마다 대략해가는 형태라면 보다 심층적 고찰에다 연속성 유지가 어려다는 한계를 넘어섰수 없었다. 그리나 집행부 출범과 함께 선언한 종단의 이런 방향성은 나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지 로드맵을 제시해줌으로서 종무원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업방향이 명확해졌고, 계획이 중단기로 확대되면서 준비하고 예측하는 종무행정으로 원자 변화한 것이다.

4개년 계획안에는 승가교육과 포교, 수행, 사회복지등 5개 분야 중 만 내적인 과업과 함께 대시회원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11개, 주요과제 25개가 담겨 있었다. 하나 같이 종단에서 해기보던 과제들이지만, 구체화되지 못했던 것들이다. 시기는, 주변 여건은 어떻게 개정단 지원하는 등의 지시사항이 기억될 정 하는지, 예산이 꾸준히 늘 고 있는지, 지도부들이 어떤 지는 보는지를 테년마다 기억해 4년간 측정해 더디게들 주지인사 심의에 반영해 보다. 인사고과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월게 정해 지금 주요 과제가 심의에 반영되고 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과제는 지금 2010년 사찰자동산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공동수용 도모 및 방생하는 도지사분규를 적임제 관리 목적상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정했다.

법에 따르면 도지사분규 일부는 종단특별사업기금으로 예치되며, 나머지는 단해사찰, 교구본사, 종무원에 공동으로 적립해 관리해야 한다.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신도시 조성 등지 매입, 불교회관(전법회관) 건립, 포교소 건립, 교육 및 사회복지 시설 건립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무분별하게 토지사분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고 사찰 부동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합리적 운용을 위한 조치였다. 종단특별사업기금 적립금 신도시 포교로 적절했다. 최근 종단이 세종시 포교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학술교류 출범

이번에 해외학술교구 신설, 사후 재심 종단 기준 등도 달라진 종무행정으로 꼽을 수 있다. 종단은 2011년 4월 해외학술교구법을 제정한데 이어, 첫 번째 해외학술교구로 '미국동부해외학술교구'를 지정했다.

한국불교세계화와 함께 세계적인 국외포교와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종단은 국외사찰과 외국에 거주하는 스님들에 대한 정책관리에 구체적 준비를 두고 있다. '승려법' 개정을 통해 스님이 사후에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내에 출연하도록 해, 승려복지와 교육에 사용토록 한 부분도 신선하다. 이번 전종원 세이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해 종무원장 자승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 등 종단의 여러 스님들이 조계종 유지재단에 출연을 시작해, 출가자의 무소유 정신을 보여줬다.

종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종단적 과제를 현실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직할교구에 이어 전통문도회장가 가능하게 된 각 교구에서도 도입하는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유진통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받고 종단과 어려움이 없이 지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종단-문광부 지속적으로 교감해주길"

총무원장 자승스님, 유진룡 장관 환담

유진룡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지난 11일 조계종 종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유진룡 장관을 만나 "바른 일꾼 가운데 조계종 방문하고 감사를 가져주시고 입다"며 "우리종단 기획실과 문화부 지속적으로 교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어느 때보다 문화부를 잘이 도와주고 한국종교가 보다 발전하도록 대표하도록 서로 도와나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번 대보다 문화부를 잘이 도와주고 한국종교가 보다 발전하도록 대표하도록 서로 도와나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스님은 "우리 종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부서이자 이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그간 종단이 임원을 이해해주고 교류해준 것처럼 이러을 앞이 지내 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장관은 "어느 때보다 문화부를 잘이 도와주고 한국종교가 보다 발전하도록 대표하도록 서로 도와나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현경 기자 ecrazy@buddhapia.com

"中, 티벳트 망명정부와 대화 나서라"

분신쌍자 추모제 유연 등에 협력 호소

3월10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티베트 민중봉기 54주년 기념사업 분신쌍자 추모문화제' 가 열렸다.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항의해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107명이 분신했다. 사망자는 90명이 이르러 불교는 자살을 포함한 모든 살생을 금지하고 있다. 불교를 믿는 티베트인들이 교리를 어기면서까지 지국내사회에 티베트 사태를 알리는 극단적인 항동을 한다고 인다. 강에 등 국제사회는 중국에 강경책을 거두라고 주문했지만, 중국의 강압 통치는 사자지지 않고 있다. 분신 또한 국제사회의 충분한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티베트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날 추모문화제는 분신이라는 희후 수단을 선택한 티베트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연대의 뜻을 전해져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티베트 전통의식으로 시작돼 남녀가 스님 등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 추모기도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강물한 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했다. 행사장 밖에서도 희생자를 위한 촛불 수천개 연등이 이어졌다.

행사 상기이 명명문부 총리는 영상을 통해 세계 각국 정부와 고고학은 지지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 며, 중국정부와 의의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엔 등이 티베트에 입재해 심각한 상황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분신이 이 사태 알아나게 알리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달라이 라마는 지난해 3월 2005년에 특사를 파견해 후진타오 정부와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해나의 중국' 을 수용하겠으니 용 폭력행동구자원 고도 자치를 위 음을 하는 대중구기(大爆風 · 대티베트 구)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 지난 중국은 소수민족의 요사 요구를 측량시킬 수 있다는 원을 우려해 단호히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의 대규모 무장시대가 발생했으며, 2010년 1월의 협속 끝고 모 장이 대한는 중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티베트 자유를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연대랩연도 이어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위후스님은 이날 "티베트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던지고 있다"며 "전세계인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인권 임재를 준비해 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에도 한국교 사회교대교 비민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원용 선사, 김정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박원서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소설가 이호철, 영화감독 임순례 씨 등이 지지연이을 했다.

홍다영 기자 hong28@buddhapia.com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티베트 민중봉기 54주년 기념사업 분신쌍자 추모문화제' 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분신쌍자를 위한 추모기도를 하고 있다.

쌍계율학승가대학원 공식 인가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에 율학승가대학원이 문을 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7일 제132차 교육원의결에 열고 쌍계사 쌍계율학승가대학원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이번 인가된 쌍계율학승가대학원은 2년 4학기 과정으로, 종단의 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해 '경전별', '법맥경', 및 '교육', '계율' '불교윤리학' '국학(수계의식)' 등을 두고 있다.

쌍계사는 신청 당시인 국사암 전체를 율학승가대학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강여실, 방사, 세탁장 등을 충분히 확보해 강원 향후 승가대학원에 입학할 학인 스님들이 율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문승원장은 쌍계사 주지 성조스님은 "쌍계사 조실이자,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고산스님 초청특강을 마련해 많은 율학승가대학원 학인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율장 수학을 통해 승가의 기본정신 과 율의 전통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운영의 의지를 밝혔다.

이현경 기자 ecrazy@buddhapia.com

법규위 삼권분립 취지 '위반'

종회 의장단, 상임·법제분과 연석회의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혜운스님)가 지난 2월27일 법규위원회법 2조2항을 위반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앙종회(의장 광덕스님)가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삼권분립위배 사항이라 생각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8일 제100회 중앙종회 임시의장단 회의를 열두고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법제분과위원회 연석의의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방문해 의장 광덕조정 회의를 가졌다.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법제분과위원회 이상은 종무원장 자승스님은 "법규위원회 이상은 종무원장 자승스님은 "법규위원회 의 과정 중 의견이 있었다면 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법제분과위원회